

# 시멘트 '82 決算書

朴 鍾 璇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長〉

## I. 序 論

1982年度 시멘트需給은 무엇보다도 長期間 繼續되고 있는 建築景氣의 沈滯現象으로 말미암아 2년에 걸쳐 負의 成長을 免치 못하고 있었던. 內需가 다소의 恢復勢를 보여 시멘트史上 最惡의 需給危機에서 벗어났다는 點을 우선 짚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內需 振作은 好況을 누려왔던 78년과 79년의 規模에 比해선 相當한 隔差가 있는 것으로 內需不振 現象에 依한 不況은 아직도 持續되고 있는 實情이다.

今年度 內需伸張은 國內建築景氣가 恢復된 土臺에서 惹起된 現象이라기보다 政府當局의 果敢하고 革命的인 經濟施策에 依한 暫定的 現象의 結果라는 것을 否定할 수 없는 바, 이는 7月以後 大幅 늘어났던 內需가 시멘트 盛需期인 10월에 접어들면서 前月比 마이너스 6%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11월에 와서는 비록 季節적으로 시멘트 非需期가 始作되는 時點이라고 하지만 需要에 가장 敏感한 消費地의 시멘트 出荷가 현저히 鈍化돼 다시 滯貨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需要起伏은 不安한 建設景氣의 基調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一部 局地的 異常過熱현상에 對한 政府의 不動産投機規制措置와도 전혀 無關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11月和 12月の 需要 역시 밝은 面

보다 어두운 面이 더 짙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결국 今年度 國內 시멘트需給實績은 最惡의 한해였던 前年度 實績에 比해선 다소 好轉되기는 했으나 年平均 內需稼動率은 여전히 50%臺에서 맴돌고 있으며 需給動向 역시 月간격으로 심한 起伏을 보여 추세마저 가늠하기 어려웠던 狀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II. 需給實績分析

### 1. 1~10月 內需實績

#### 1) 需要部門別 實績

今年度 1~10月까지 內需實績은 11,821 千톤으로서 80년 同期實績인 11,189 千톤 對比 105.65% 增加를 나타내고 있으며 81년 同期實績인 10,336 千톤에 對해서는 114.37%의 增加率을 기록, 81년을 바닥으로 하여 漸次 恢復되고 있는 趨勢이다.

이와 같은 實績을 需要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는 80年度와 81年度에 對하여 각각 107.12%와 119.47%의 增加를 보임으로써 持續的인 成長勢가 이어지고 있으나 官需는 이와는 反對現象으로 80년 對比 100.45%, 81년 對比 98.62%에 머물러 있어 長期間에 걸친 不振相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바 今年度 內需는 官需보다는 民需部門이 主導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政府의 豫算에 依據 執行되고 있는 官需는 지

난 81년에도 豫想과는 달리 實績이 低調함으로 前年度에 비해 不過 4.0% 增加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今年의 境遇는 去年과 달리 政府當局의 各種官給工事に 對한 豫算早期執行施策과 今年부터 始作되는 教育稅 新設에 따른 教育施設投資의 推進 등 特殊要因에 影響을 받아 今年度 內需를 主導할 것으로 豫想되었었는데 結果는 意外로 나타난 셈이다.

今年度 內需가 好轉의 增加趨勢로 轉換하게

된 가장 큰 要因은 그동안 極甚한 沈滯現象에서 脫皮하지 못하였던 建築景氣가 住宅경기의 先導에 힘입어 漸次 恢復勢를 보인데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이는 今年度 建築許可實績이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即 1~9月까지 全國 建築許可延面積實績은 21,560 千㎡로서 前年同期對比 135%의 增加率을 나타냈는데 있다.

이를 用途別로 구분해 보면 建築景氣를 先導하는 住居用과 商業用, 文教·社會用 등이 각각

82年度 1~10月 需給總括表(시멘트基準)

<表-1> (單位: 千噸)

		80(A)	81(B)	82(C)	對 比	
					$\frac{C}{A} \times 100$	$\frac{C}{B} \times 100$
供 給	移 越	473	574	498		
	生 産	13,226	12,921	14,852	112.29	114.94
	計	13,699	13,495	15,350		
需 要	內 需	11,189	10,336	11,821	105.65	114.37
	民 需	8,705	7,805	9,325	107.12	119.47
	官 需	2,484	2,531	2,496	100.48	98.62
	輸 出	2,007	2,713	2,968	147.88	109.40
	計	(1,769)	(2,162)	(1,732)	(97.91)	(80.11)
在 庫		503	446	561		

註: (크링카) 輸出, 外書입

82年度 크링카 및 시멘트 需給實績

<表-2> (單位: 千噸)

	크 링 카					시 멘 트					總 出 荷 (크링카 輸出包含)	在 庫 計 (크+시)
	生産	消 費			在庫	生産	出 荷			在庫		
		輸出	시멘트用	計			輸出	內需	計			
移越					593					498		1,091
1	1,492	153	1,127	1,280	805	1,175	478	551	1,029	644	1,182	1,449
2	1,277	183	861	1,044	1,038	903	317	587	904	643	1,087	1,681
3	1,607	160	1,351	1,511	1,134	1,427	357	1,164	1,521	549	1,681	1,683
4	1,563	90	1,542	1,632	1,065	1,644	381	1,334	1,715	478	1,805	1,543
5	1,714	285	1,551	1,836	943	1,653	356	1,234	1,590	541	1,875	1,484
6	1,486	85	1,398	1,483	946	1,490	212	1,316	1,528	503	1,613	1,449
7	1,577	243	1,395	1,638	885	1,491	213	1,273	1,486	508	1,729	1,393
8	1,632	149	1,419	1,568	949	1,516	210	1,263	1,473	551	1,622	1,500
9	1,674	190	1,552	1,742	881	1,658	169	1,608	1,777	432	1,967	1,313
10	1,821	194	1,779	1,973	729	1,895	275	1,491	1,766	561	1,960	1,290
計	15,843	1,732	13,975	15,707		14,852	2,968	11,821	14,789		16,521	

82年度 1~9月 用途別 建築許可 延面積實績

(單位: 千 m<sup>2</sup>)

區分 月別	住居用		商業用		工業用		文教·社會		其他		計	
	面積	前年比 (%)	面積	前年比 (%)	面積	前年比 (%)	面積	前年比 (%)	面積	前年比 (%)	面積	前年比 (%)
1	397	130.2	304	123.8	131	95.5	103	95.8	49	101.4	984	116.7
2	390	81.7	313	109.1	127	102.4	201	231.1	39	59.5	1,070	102.8
3	1,133	103.4	572	119.4	213	141.6	278	226.5	60	71.4	2,256	116.8
4	1,284	93.3	634	100.1	158	77.3	282	136.7	70	76.8	2,428	97.8
5	2,340	191.2	647	110.3	234	79.4	286	161.0	113	130.4	3,620	152.7
6	1,204	127.6	573	122.1	182	91.2	295	201.0	101	62.0	2,356	122.5
7	1,436	184.2	513	141.1	172	55.6	253	212.5	88	139.9	2,462	150.6
8	1,483	164.7	620	161.0	211	101.6	199	146.7	71	101.3	2,585	152.1
9	2,377	240.7	834	147.7	269	135.3	212	108.6	108	106.2	3,799	185.6
計	11,980	148.6	5,061	126.1	1,692	92.6	2,126	163.9	702	90.8	21,560	135.0

前年同期對比 148.6%와 126.1% 및 163.9%의 높은 實績을 보였으며 특히 住居用은 전체 延面積의 50%를 차지함으로써 名實共히 건축 경기의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음이 實證되고 있다.

또한 이의 月別實績은 1월부터 4월까지 緩慢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쳤으나 5월을 起點으로 增加幅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9월의 境遇는 延面積實績이 3,800천m<sup>2</sup>에 達해 지난 70年代 以後 最大의 實績을 記錄하기도 했다.

9월의 建築許可實績을 基準으로 地域別 狀況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仁川, 京畿, 江原一帶가 全體實績 중 60% 以上에 該當하는 2,313천m<sup>2</sup>으로서 前年同期對比 199%라는 大幅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其他 地域도 1,486천m<sup>2</sup>의 實績을 올림으로써 167.8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大都市인 서울, 釜山, 大邱 地域에서 相當이 높은 實績을 示顯하고 있는 것은 건축경기가 地方보다는 大都市 中心으로 恢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建築許可實績이 建設景氣의 先行指標로 꼽히고 또 시멘트가 建築의 必需資材인 바에야 許可趨勢에 比例하여 시멘트需要도 增大되어야 할 것인데 實際需給은 許可時點과 需要時點의 타임래그를 勘案해 봐도 꼭 맞아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許可分 중에는 상당한 觀望勢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 2) 月別實績

今年度 月別出荷動向의 特徵은 먼저 지난해와 달리 시멘트 非需期인 1~2월의 出荷實績이 현저히 增大된데 反하여 시멘트 盛需期인 3~5월 사이에는 오히려 鈍化현상을 자아냄으로써 더 좋은 實績을 가져올 수 있었던 上半期中의 需要伸張이 不過 108.15% 증가 水準에 그치게 있다.

1~2월의 出荷實績이 前年同월에 對하여 豫想外로 높은 伸張을 示顯하게된 要因을 찾아보면 81년부터 政府當局에서 展開해오던 各種 景氣活性化 對策이 82년을 契機로 實施段階에 突入할 것이라는 心理的作用과 정부당국의 各種 官給工事に 對한 豫算早期執行實施가 경기振作에 刺戟을 준 것으로 일단은 分析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象이 시멘트 盛需期가 始作되는 3월부터 오히려 反對 現象으로 나타나 4월과 5월의 實績이 前年水準에 未達되었음을 볼 때 반드시 그와같은 要因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바꾸어 말해 81년에는 不況과 함께 酷寒이라는 또 다른 需要不振의 要因이 겹쳤으나 今年 겨울은 이와는 反對로 異常暖冬 현상이 빚어져 4월 以後에나 始作될 各種建築工事が 앞당겨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平凡한 理論으로 說明할 수도 있겠다.

다음 7월 以後 시멘트 內需實績이 비교적 活況을 보여 온것은 5월을 起點으로 增加趨勢를

82年度 月別 內需出荷實績

<表-4>

(單位: 千톤)

	民 需			官 需			計		
	81	82	對比(%)	81	82	對比(%)	81	82	對比(%)
1	289	413	142.91	197	138	70.05	486	551	113.37
2	282	452	160.28	137	135	98.54	419	587	140.10
3	775	873	112.65	324	291	89.81	1,099	1,164	105.91
1/4 分期計	1,346	1,738	129.12	658	564	85.71	2,004	2,302	114.87
4	964	1,043	108.20	373	291	78.02	1,337	1,334	99.78
5	971	950	97.84	314	284	90.45	1,285	1,234	96.03
6	828	1,055	127.42	266	261	98.12	1,094	1,316	120.29
2/4 分期計	2,763	3,048	110.31	953	836	87.72	3,716	3,884	104.52
上半期計	4,109	4,786	116.48	1,611	1,400	86.90	5,720	6,186	108.15
7	698	1,034	148.14	210	239	113.81	908	1,273	140.20
8	947	1,021	107.81	213	242	113.62	1,160	1,263	108.88
9	947	1,300	137.28	227	308	135.68	1,174	1,608	136.97
3/4 分期計	2,592	3,355	129.44	650	789	121.38	3,242	4,144	127.82
10	1,104	1,184	107.25	270	307	113.70	1,374	1,491	108.52
7~10 月計	3,696	4,539	122.81	920	1,096	119.13	4,616	5,635	122.08
1~10 月計	7,805	9,325	119.47	2,531	2,496	98.62	10,336	11,821	114.37

보이기 始作한 건축허가실적이 政府當局의 6·28 金利引下措置와 곧이어 發表된 7·3 實名制發表 등 충격적인 景氣對策의 영향으로 이제까지 觀望만 해오던 건축경기가 이에 便乘하여 加速化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리하여 7월과 9 月에는 內需가 각각 前年同期比 140%와 137%의 보기드문 增加率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는 3년 以上 계속되고 있는 시멘트業界의 不況期中 모처럼 누려본 반짝 景氣이다.

그러나 시멘트 最高盛需期인 10월에 와서는 需要의 上昇勢가 빠른 速度로 下降, 前年同月에 比해 不過 108.52% 增加에 그쳤을 뿐 아니라 物量面에 있어서도 9月보다 약 300千톤이나

大幅減少되었다.

3) 內需稼働率

시멘트産業은 內需爲主로 成長해온 內需産業이다. 게다가 輸出은 만성적 赤字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따라서 業界는 內需와 生産能力과의 比率, 즉 內需稼働率이라는 基準에 依據産業經營 및 景氣狀況을 診斷하지 않을 수 없다. 今年度 1~10 月까지의 內需稼働率은 不過 57%로 지난 70年代의 80% 以上과 比較하여 볼 때 相當한 隔差를 나타냈다.

이의 月別 變動狀況을 보면 內需實績이 好況을 보였던 9월과 10月만이 각각 78.90%와

82年度 月別 시멘트生産能力 對 內需出荷

<表-5>

(單位: 千톤)

	1	2	3	4	5	6	7	8	9	10	計
生産能力	2,105	1,902	2,105	2,038	2,105	2,038	2,105	2,105	2,038	2,106	20,647
內需出荷	551	587	1,164	1,334	1,234	1,316	1,273	1,263	1,608	1,491	11,821
內需稼働率(%)	26.18	30.86	55.30	65.46	58.62	64.57	60.48	60.00	78.90	70.80	57.25
前年對比(%)	113.37	140.10	105.91	99.78	96.03	120.29	140.20	108.88	136.97	108.52	114.37

70.80%를 기록, 과거 70年代의水準에 接近하고 있을 뿐 3월부터 8월까지 6個月동안의 實績은 例年水準을 훨씬 下廻한 55%에서 65%水準에 그치고 있다. 特히 1,2月은 각각 26.18%와 30.86%라는 最下位線까지 내려가 있어 非需期동안 시멘트業界의 經營狀況이 어느 程度로 惡化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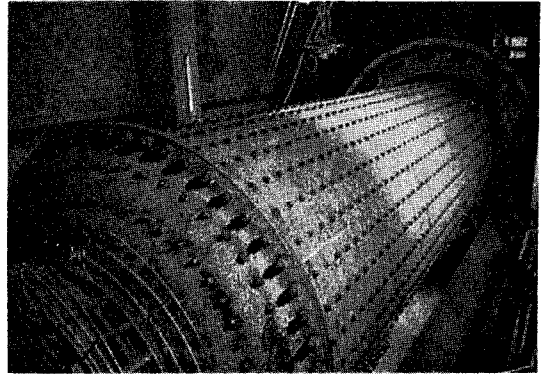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이와같은 내수가동물의 저조현상은 바로 莫大한 内外資金이 投入된 諸般生産施設의 遊休化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生産稼動과 關係없이 所要되는 借入金償還과 人件費 등 固定費支出에 直接的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運營資金調達에도 크게 威脅을 줌 企業을 더이상 支撐해 나가기 어려운 限界의 狀況으로까지 몰아가는 要因이 된다. 지난 81년 시멘트 내수가동물이 50.18%에 그친 結果 엄청난 赤字를 招來, 苦戰을 면치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그 餘波에 시달리고 있는 시멘트企業들의 立場에서 볼 때 50%台的 低調한 稼動率과 不透明한 景氣展望은 가장 큰 經營不安要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4) 벌크消費實績

82년 1~10月까지 벌크出荷實績은 3,681천톤으로서 內需出荷中 31%를 占有, 80年度의 21.3%와 81년의 26.6%에 對하여 持續的인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벌크出荷가 增大되고 있는 것은 消費者들의 레미콘 選好度가 높아지면서 雨後竹筍格으로 늘어난 레미콘會社들에 의한 벌크消費와 콘크리트 및 시멘트 2次 製品에 對한 品種多樣化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2년 1~9月까지 國內主要 12個레미콘會社에서 消費한 벌크量은 약 200만톤에 達하는데 이는 全體 벌크消費量의 60%에 該當된다.



그러나 벌크소비에 있어 先進國인 日本이나 美國이 시멘트 전체 消費量의 60%~90%를 占하고 있는 것에 比하면 우리의 경우는 이제 겨우 定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日本의 全體 벌크소비량중 레미콘부분 소요량은 80% 이상 된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벌크出荷의 長點은 消費者 側面의 경우 制限된 空間에서 工期를 最大限으로 短縮, 建設에 능률을 期할 수 있다는 點이며 生産者 側面에서는 流通構造改善과 包裝費節減으로 生産原價를 낮춤으로써 經營合理化를 期할 수 있다는 經濟性·迅速性 등에 있는 바 앞으로 벌크需要는 레미콘産業의 적극적인 육성과 消費地 벌크施設의 擴張을 통해 더욱 增大되어야 할 것이다.

#### 2. 1~10月 輸出實績

今年度 1~10月까지의 出荷基準 輸出實績은 4,700천톤으로 지난해의 4,875천톤 보다 다소 減少되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크링카 수출이 현저히 增大되었던데 비해 今年에는 크링카가 오히려 前年比 80.11%에 該當되는 1,732천톤의 低調한 實績을 보인 反面 시멘트는 2,968

82年度 月別 벌크 出荷實績

<表-6>

(單位: 千톤)

	1	2	3	4	5	6	7	8	9	10	計
內 需	551	587	1,164	1,334	1,234	1,316	1,273	1,263	1,608	1,491	11,821
벌 크	118	191	335	421	419	485	458	364	490	400	3,681
벌크 比率(%)	21.42	32.54	28.78	31.56	33.95	36.85	35.98	28.82	30.47	26.83	31.14

천톤의 實績을 올림으로써 前年比 109.40%로 好轉되었으며 이와같은 수출은 沿岸에 位置하고 있는 東洋과 雙龍에 依하여 거의 履行되고 內陸會社들은 이들과의 物物交換形式으로 小量에 그쳤었는데 今年에는 이들 內陸會社에서도 徐徐히 輸出에 直接 參與하고 있는 것이 例年과 다른 現象이다.

한편 輸出對象國 가운데 파키스탄과 네팔, 인도네시아 등이 前年比 가장 큰 伸張勢를 보였으며 去來時勢 측면에선 대만이 孟加拉페쉬와 인도 等地에서 積極인 가격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수출單價가 더욱 惡化되고 있는 형편이다. 要컨대 시멘트 수출은 지난 79년 第2石油波動 以來 生産原價는 大幅 上昇된데 對하여 수출가격은 오히려 國際市場의 供給過剩現상으로 말미암아 계속 下落되고 있음으로써 甚한 赤字輸出이 不可避한 實情인 바, 이와같은 수출 與件은 世界경기의 萎縮으로 더욱 深化되어제는 從前의 物量競爭에서 價格競爭으로 突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國際市場 環境이다.

따라서 시멘트 수출의 持續的 成長을 위해서는 技術開發과 經營合理化를 통한 生産原價節減, 그리고 對外競爭力強化를 위한 諸般戰略樹立 및 制度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生産實績

1~10월까지 크링카生産은 輸出部門의 크링카 수출과 韓國高爐시멘트 供給 등으로 15,843천톤의 實績을 올림으로써 前年同期對比 112% 增加를 보이고 있는 反面 시멘트生産은 그동안 累積되어온 크링카在庫과잉현상으로 生産보다는 在庫消費에 力點을 둠으로써 14,851천톤의 低調한 實績을 나타내고 있으나 前年同期對比에 있어서는 크링카 증가률을 上廻한 114.9%의 伸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全體 生産稼動率은 81%로 前年同期間의 72%에 比해 약 9% 포인트의 上昇率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0년 以後 79년까지의 平均稼動率인 97%에 比較해 볼때 아직도 不振相을 免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社別 稼動률은 規模가 제일 작고 現共販體制에 參與하지 않고 있는 高麗시멘트만이 前年同期比 113.7%의 높은 實績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社는 前年水準을 약간 上廻하는데 그쳤거나, 기계 훨씬 未達되고 있는 實情이다.

即 東洋과 雙龍 그리고 現代는 각각 82%와 89.35% 및 81.48%를 보이고 있는데 反하여 韓一과 亞細亞, 星信은 이보다 훨씬 低調한 60.22%와 64.47% 및 65.21%를 나타냈다. 東洋과 雙龍이 他社에 比해 높은 實績을 나타낸 것은 輸出履行으로 稼動率을 提高시킨데 基因하며 現代시멘트 경우는 共販參加會社中 規模가 제일 작은데다 自家消費比率이 크게 차

社別 크링카生産實績 및 稼動狀況

<表-7>

(單位: 千噸)

	年間能力	1 ~ 10月			前年對比(實績) (%)
		生産能力	生産實績	稼動率(%)	
東洋	3,508	2,922	2,398	82.07	110.51
雙龍	11,510	9,587	8,565	89.34	112.06
韓一	2,350	1,957	1,178	60.19	108.27
現代	1,208	1,006	820	81.51	113.10
亞細亞	1,799	1,498	966	64.49	116.67
星信	2,501	2,083	1,359	65.24	113.63
小計	22,876	19,053	15,286	80.23	111.99
高麗	587	489	557	113.91	113.67
合計	23,463	19,542	15,843	81.07	112.04

82年度 需給展望

(單位: 千噸)

<表-8>

	'81 實績	1 ~ 10月			82 展 望	
		81	82	對 比(%)	數 量	前 年 比 (%)
크링카生産 (稼 動 率)	16,777 ( 71.50)	14,140 ( 72.36)	15,843 ( 81.07)	112.04	18,593 ( 79.24)	110.82
시멘트生産	15,600	12,921	14,852	114.94	17,602	112.83
內 需 (內需稼動率)	12,439 ( 50.18)	10,336 ( 50.06)	11,821 ( 57.25)	114.37	14,241 ( 57.37)	114.49
民 需	9,382	7,805	9,325	119.47	11,241	119.81
官 需	3,057	2,531	2,496	98.62	3,000	98.14
輸 出 (크)	3,243 ( 2,530)	2,713 ( 2,162)	2,968 ( 1,732)	109.40 ( 80.11)	3,368 ( 2,032)	103.85 ( 80.32)
計	15,682	13,049	14,789	113.33	17,609	112.29
在 庫 (크)	498 ( 593)	446 ( 869)	561 ( 729)		511 ( 709)	

지하고 있는데 힘입은 것이다.

4 展 望

以上 10월까지 需給實績을 살펴본 바와같이今年度 需給動向은 內需의 緩慢한 上昇勢로 하여 다소의 生産稼動率向上과 工場 및 消費地在 庫 減少現象을 가져왔다. 이와같은 前提아래 11, 12月の 需給을 예측,今年度 需給을 決算하여 보면 먼저 內需는 11, 12월에 各種建築工事들이 마무리 段階로 接어들어가는 關係로 시멘트 수요추세는 일단 鈍化된 狀態에서 이어지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今年度는 下半期 以後 뚜렷한 증가현상을 보인 건축허가실적과 部分的인긴 하나 건축경기의 活發했던 霧圍氣를 勘案할 때 需要가 延長되리라는 期待感을 가질 수 있는 反面 또 한편으로는 政府當局의 一部 地域에 對한 強力한 不動産投機規制措置 影響으로 건축경기가 冷却狀態로 突變, 시멘트需要가 減少할 것이라는 否定的인 측면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11月과 12月の 內需를 각각 前年比 118%와 112% 增加에 該當되는 1,320천톤과 1,100천톤으로 展望함은 큰 無理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推算하면今年度

內需는 총 14,241천톤에 達하게 돼 前年對比 114.5% 增加, 內需稼動率 57%로 幕을 내릴 것이다.

한편 需要別內譯은 民需가 11,241천톤으로 前年對比 약 120%의 증가를 보이는 反面 官需는 약 3,000천톤에 그쳐 98.14%의 不振한 實績을 免치 못할 것 같다. 그리고 輸出은 內需와달리 11, 12月을 期하여 物量이 增大될 것인 바, 이는 內需非需期에 輸出物量을 늘림으로써 稼動率을 提高시킨다는 常識인 要因과 年内船積 조건으로 되어있는 모든 輸出物量을 整理하는데 있다.

그러나今年은 長期化되고 있는 世界景氣 不況으로 因하여 가격경쟁이 더욱 深化되는 등 輸出與件 惡化현상이 두드러져 지난해와 같은 伸張勢를 期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11, 12月中에는 月間 350천톤 水準을 크게 上廻하지 못할 것으로 展望된다. 總生産稼動率은 이와같은 需要에 따라 지난해의 71.50%에서 7.74%포인트 늘어난 79.24%의 實績을 나타낼 것으로 豫想된다.

이제 1982년도도 시멘트産業史에 또다른 年輪을 남긴채 저물어간다. 새해에는 安定된 경기 恢復속에서 持續的인 需要가 이어져 긴 不況의 傷處가 快癒되기를 祈願해 마지 않는다. ♣♣